

새로운 천년 또는 새로운 백년을 맞게 되었다. 사람들은 스스로 시계와 달력을 발명해놓고 자신이 만든 시간 속에서 자신의 삶과 역사를 헤아리고 있다. 이런 기계적 또는 물리적 시간은, 한편으로 인간이 자신을 속박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런 시간으로 헤아린 삶과 역사란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그것이 비록 자신의 굴레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규정하는 시·공간적 준거의 틀 속에서 생활하는 데 이미 익숙해졌고, 이 틀에 맞추어 자신의 의식과 담론을 체계화하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몇 년 간은 우리에게 위기의 시기였다. 우리 역사 또는 자본주의의 역사가 항상 위기의 연속이라고 하겠지만,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기가 우리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우리 사회와 환경을 황폐화시켰다. 물론 이런 위기는 우리 자신의 잘못에 따른 것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집단이나 메커니즘에 내재된 문제에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이 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대상은 우리이고, 또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주체도 우리이다.

최근 우리 경제가 다소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단지 가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즉, 위기의 분출은 단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이고 우리나라 또는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여전히 잠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시적으로

드러난 부분들 가운데, 위기의 사회적·환경적 충격들은 여전히 심각하게 남아 있다. 위기로 인해 사회계층간 격차는 크게 확대되었고, 생태계에 미친 영향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도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맞게 된 천년이나 백년, 심지어 앞으로 10년이나 2~3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경제인들이나 정치가들이 위기에 대해 철저한 자기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가시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자만 또는 이를 빌미로 만연해진 신자유주의적 방침은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호는 ‘세계화의 위기와 대안적 공간환경론’을 <특별기획>의 주제로 선정하고 네 편의 논문을 신고자 한다. 우선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의 글, 「범지구화의 문제설정」은 이를 최근에 출현한 정치경제적 조건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발전의 어떤 과정으로 이해하고, 이의 시·공간적 차원을 분석하고 있다. 닐 스미스(Neil Smith)의 「세계경제 위기와 국제비판지리학의 필요성」은 세계화란 자본주의가 그에 내재한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이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세계화가 더욱 촉진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그는 이런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국가 단위의 지리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비판지리학의 발달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최병두의 글 「동아시아의 위기와 대안적 지리학」은 이런 세계화 과정을 배경으로 동아시아 위기의 발생 배경을 국내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최근에 이런 위기가 회복되는 것과 관련된 낙관론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 또한 위기의 사회환경적 충격을 지적하면서, 대안적 지리학의 과제들을 설정하고자 한다. 한편 로버트 하싱크의 「한국의 경제적 기적과 위기」는 그가 국내에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과 최근의 위기에 대해 외국인의 입장에서 연구한 결과이다. 국내의 각 지역경제에 미치는 지역적 함의를 고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난 호부터 <기획연재>로 추진된 ‘공간환경이론과 연구동향’ 시리즈로는 미즈오카 후지오(水岡不二雄) 교수의 「영구진자운동을 해온

학제적 변증법」을 소개한다. 이 글은 일본 지리학의 발달과정을 설명하고, 특히 최근 일본경제지리학회를 포함해 일본 지리학의 신자유주의화 경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현장보고>에서는 도시 빈민의 새로운 주거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쪽방’에 대해, 최근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외 <연구논문>으로 김재훈의 「화교경제 네트워크와 중화경제권의 형성」 및 황희연 외의 「충북지역 도시방재계획의 도시계획적 진단과 발전방향」을 게재했다.

이번 호에는 의도적으로 외국인의 논문을 많이 실었다. 그 중 하비의 논문을 제외한 나머지 글들은 1999년 1월 21~23일 경주에서 개최되었던 ‘동아시아대안지리학대회’에 발표된 것들이다. 이 학술대회에는 미국의 닐 스미스 교수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태국, 홍콩, 일본 등에서 참석한 10여 명의 외국 지리학자들과 국내 공간환경연구자들이 참가했다. 이 대회는 지난 1997년 8월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창립대회가 개최되었던 국제비판지리학회의 지역학술대회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제2차 국제비판지리학대회가 2000년 8월 대구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동아시아대안지리학대회도 2001년 홍콩에서 개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적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판적 지리학자들의 활발한 활동은 한국공간환경학회와 그 학회지인 《공간과사회》의 발전에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왔던 《공간과사회》도 다음 호부터는 편집진의 교체와 더불어 다소 발전적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공간과사회》의 발전은 물론 일차적으로 편집진의 책임이지만, 독자들의 비판적 격려와 폭넓은 성원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독자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천년 또는 새로운 백년이 단순히 기계적 시간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삶과 역사를 위해 새로운 것이 되도록 우리 모두 강건하게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최병두